

<p>As we begin a new year, we are conscious, aren't we, that we are living in an ever-changing, constantly-deteriorating culture and society? The Christian foundations of our Western society, of our Australian culture, are being eroded away. To live in a culture which is hostile to so much that we have been brought up to believe in can be a very difficult balancing ac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be in the world without becoming of the world. But Daniel managed to do just that. That's why the story of Daniel is so amazingly relevant to the kind of society we live in today.</p>	<p>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끊임없이 악화되어 가는 문화와 사회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사회의, 호주 문화의 기독교적 기반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자라왔던 것에 무척이나 적대적인 문화 속에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균형잡기 일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이세상에서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해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는 놀랄 만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사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p>
<p>In 605 BC King Nebuchadnezzar of Babylon invaded Judah, besieging Jerusalem. He decided to take the best and brightest young men from the royal family and nobility of Judah and train them so that they might be used to advance his own nation – Babylon. And so Daniel (at the tender age of 14 or 15), as a very young teenager finds himself suddenly transported into a society which is hostile to everything that he has been brought up to believe, And we are told in verse 8 that, as a young teenager, Daniel resolved, he purposed in his heart, not to defile himself. And really that is the key to godliness, isn't it? It is a matter of knowing where to draw the line. It's a matter of knowing <u>when</u> to take a stand and <u>how</u> to take that stand.</p>	<p>BC 605 년 유다를 침략하였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국가인 바빌론의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유다의 왕족과 귀족으로부터 정예의 청년들을 취하여 그들을 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린 십대의 다니엘 (14 세 또는 15 세의 어린 나이의)은 그가 믿고 자라왔던 모든 것에 적대적인 사회 속으로 갑자기 옮겨지게 되었고, 8 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린 십대의 다니엘은 마음에 결단컨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한계를 두어야 할지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u>언제</u>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u>어떻게</u> 깨끗하게 버틸지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p>
<p>I want you to notice first of all where Daniel does draw the line. We are told in verse 8 tha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At first reading this may seem rather strange. There are so many other things in this chapter that Daniel could really have taken a stand on if he had wanted to – other far more serious issues in fact, aren't there? For example, there is the change of name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expected to go through in vv. 6-7. This change of name was a deliberate ploy on the part of these Babylonians to change the identity of Daniel and his friends. You see what happened is that the name of God was taken out of their names – God is taken out of their lives in fact. For example, "Daniel" means "God is judge". But Daniel from now on is going to be known as "Belteshazzar" which means "May Bel (one of the Babylonian gods) protect". It is a deliberate ploy by Nebuchadnezzar and the Babylonian</p>	<p>첫째로,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다니엘이 선을 그었는지 주목하기 원합니다. 8 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를 읽으면 다소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만일 그가 원했다라면, 다니엘이 진정으로 자신의 태도를 밝힐 수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장에 있습니다. -사실,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 절과 7 절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름을 변경함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바빌론 사람들의 고도의 책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들에서 제거되어 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 되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니엘은 "벨드사살" - "May Bel (바빌론의 신들 중 하나)이 보호함"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린 유대의</p>

<p>leadership to Babylonianize, if you like, these young Jewish lads so that by the time they've spent a few years there in Babylon they will have forgotten that they ever had any connection at all with Jehovah, the God of Israel. Surely that's a serious matter? Surely that's the place to take a stand – to refuse point blank to be known by any other name than the name he had been given in Jerusalem? But no, Daniel doesn't draw the line there.</p>	<p>사내아이들을, 종던 싫던 간에, 바빌론 사람화하기 위해, 바빌론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낸 그맘때쯤,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와 어떤 연계를 갖고 있었는지 모두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의 지도층에 의한 고도의 책략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이름보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 알려짐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다니엘은 그것에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p>
<p>Or what about the unique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we read about in vv. 3-4 that Nebuchadnezzar is offering to these young teenagers? They are being offered a wonderful education – new languages to learn, new books to read, new subjects to study. What an opportunity! And all at the king's expense, you will notice there in v. 5. And, in addition, you will notice that when they had completed their education there would be a guaranteed job in the king's service. Very clever on the part of Nebuchadnezzar, very subtle, very dangerous – he syphons off the cream of the up-and-coming generation of Jews and submits them to a 3-year program of re-education. His aim is to educate them so that by the time he has finished with them they will share his world view – they will no longer be thinking as Jews but as Babylonians. Surely you would have thought this is where Daniel would take a stand? That he would have refused to have any part in this new educational opportunity? But no – rather he and his friends embrace this educational opportunity. At the end of 3 years the graduates are brought before the king and he gives them an oral exam, as it were. And the king found none equal to Daniel and his friends. They were the top of the class. In fact, verse 20 tells us that “in every matter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questioned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enchanters in his whole kingdom”. They were model students – they gave themselves to their studies – and they graduated with flying colours.</p>	<p>우리가 3 절과 4 절에서 읽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어린 십대들에게 제공하였던 특별한 교육적 기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과목들을 공부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5 절에서 보듯이 이 모든 것은 왕이 부담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학업을 마쳤을 때, 왕의 조직 내에 일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매우 영리하고, 교묘하며, 위험한 느부갓네살 - 그는 최고의 유망한 유대인의 세대를 빼내어, 그들을 3 년의 재 학습 과정에 따르게 합니다. 그의 목적은 그들을 교육하여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바빌론 인으로 생각할 그의 세계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명백히, 여러분은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학업적 기회의 어떤 부분도 그는 거절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 교육의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3 년의 마지막에 졸업생들은 왕 앞에 불려졌고, 이를테면, 그는 그들에게 구두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 20 절에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학업에 열중한, 본보기가 되는 학생들이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p>
<p>And so it comes as a bit of a surprise to find that Daniel takes a stand over a matter that seems to us to be a comparatively unimportant issue – their food and drink. But remember that this was not just any food – it was food from the king's own table, the very best food available.</p>	<p>그리고, 다니엘이 우리에게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쟁점 -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 그의 입장을 밝혔음은 약간의 놀라운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고의 음식이었던 왕의 음식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p>

<p>Why, then, did Daniel resolve, determine, not to eat the king's food? Why did he draw the line there? Why did he object to the food? Perhaps much of it was food forbidden by the laws of Leviticus? But why then did he refuse the wine? There was nothing in the law of Moses forbidding the drinking of wine. Maybe it was because the food had been offered to idols? Almost certainly the first portion of it would have been offered to idols. And a portion of the wine would have been poured out on a pagan altar. This was a very sensitive issue because it was idolatry that brought the people of Israel into captivity. That was the sin for which God had sent his people into exile in Babylon. But what about the vegetables? They would probably have been offered to idols too! And Daniel didn't refuse to eat those. Why then does he object to the food and wine? It isn't the food and wine that is the problem – it is the association, isn't it? It's the company. This was food and wine from the king's table. To eat with someone in the ancient world was a sign of friendship – it was a sign of fellowship. In the diplomatic context, eating together implied a political alliance. Even as a boy of 14 or 15, Daniel knew what Nebuchadnezzar was up to – and he was not prepared to go along with it. "Yes I'll live in your world, Nebuchadnezzar – I'm very grateful for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I've got here and it isn't too bad living in Babylon. I'll live in your world and I'll cooperate with you to a certain extent but I am not going to eat the food and drink the wine from your table. Don't think that you own me! I don't belong to you! I belong to Jehovah the God of Israel." And so Daniel resolves, he purposes in his heart, that he will not allow himself to be compromised at this point. It is one step further than he is prepared to go.</p>	<p>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정하였을까요? 왜 그는 이것에 선을 그었을까요? 왜 그는 음식에 이의를 제기하였을까요? 아마도 레위기의 법률에 의해 금지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왜 와인을 거절하였을까요? 모세의 규율에는 와인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것의 첫 분깃은 우상에게 드려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인의 일부는 이교도 제단에 부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빌론 유수에 이스라엘 백성에 야기되었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빌론으로 그의 백성들을 추방시켰던 하나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야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것들도 우상에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야채를 먹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음식과 포도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까요? 문제였던 것은 음식과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와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친선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교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외교의 맥락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정치적 연합을 뜻합니다. 14 세 또는 15 세의 어린 소년으로조차,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세계에 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갖게 된 학습의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바빌론에서의 삶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세계에 살 것이며, 어느 정도는 당신에게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소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에 결단컨대, 이러한 점에 대해 스스로를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정합니다.</p>
<p>You see Daniel is a believer – his trust is in God. And he knows that as a believer, sooner or later, somewhere or another, he is going to be drawn headlong into compromise and apostacy, unbelief. Do you realize that friends? In the kind of society in which we live, in the kind of culture in which we find ourselves, which is hostile to God and anti-Christian today, you and I, sooner-or-later, will have to draw the line, take a stand – otherwise we are going to be swept away into irretrievable compromise. You've got</p>	<p>여러분은 다니엘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봅니다. 그는 믿는 자로서, 조만간, 어디인가에서, 그가 타협과 변절 그리고 불신앙으로 곤두박질쳐질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들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반기독교적인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문화에서, 여러분과 저는 조만간 선을 긋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타협에 휩쓸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p>

<p>to take a stand as a Christian somewhere in your life. Daniel knew that and he resolv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go only so far and no further.</p>	<p>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가지 않을 뜻을 정하였습니다.</p>
<p>Now,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ecide where to take a stand? Notice the emphasis given here to the mind in all this. Verse 8 tells us that Daniel “resolved” (NIV) or “purposed in his heart” as the Authorized version says. He made up his mind in other words. The secret of godliness lies in the way we think. It is vital that we understand this in these days when for much of the church “experience” is seen a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hristian life. The key to godliness in a godless world is in the mind – this is the very point at which the enemy attacks us, isn’t it? If Nebuchadnezzar could change the way in which these Jewish teenagers were thinking, if he could only get them to share his world view, if he could only get them to think like Babylonians, then it would not be long before they began to live like Babylonians. On the other hand, so long as they thought of themselves as the Lord’s people, they would live as his servants even in Babylon. How you think is vitally important. The secret of remaining faithful to God in a society that is rebelling against him lies precisely in the way you think.</p>	<p>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어디쯤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여기 마음에 주어진 주안점을 인식하십시오. 8 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다”(NIV) 또는 “마음에 결단컨대” (King James Version)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교회에 있어 “체험”은 기독교인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요즈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초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 십대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면, 만일 그가 단지 이들과 그의 세계관을 나눌 수 있었다면, 만일 그가 단지 이들을 바빌론 사람들처럼 생각하도록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바빌론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한은, 그들은 심지어 바빌론에서조차 그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회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무르는 것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에 놓여 있습니다.</p>
<p>What does Paul say at the beginning of Romans 1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 be a non-conformist but not in an offensive or objectionable way. There is nothing objectionable about the way Daniel digs in his heels here in Daniel chapter 1, is there? He is very polite and courteous about it. He is very sensitive to the feelings of the guard whom the chief official, Ashpenaz, had appointed over him and his friends. “Please put us on trial for 10 days on vegetables and water”, he says. “It will be alright. You will see. Don’t worry.” He is not in the least offensive – he is reasonable about it. But he draws the line and takes his stand. And Paul tells us in Romans 12 that that is the way we are to live the Christian life. It is how you are to worship God in your living.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 don’t let this world squeeze you into its mould, into its way of thinking. Rather “be</p>	<p>로마서 12 장의 시작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태도가 아니나 순응하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다니엘서 1 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취한 방법에는 그 어떤 무례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정중하고 공손합니다. 그는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와 그의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자의 감정도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을 시도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팬찮을 것입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추후도 모욕적이지 않습니다 - 그는 그것에 대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분 짓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 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이 세상이 그것의 틀, 그것의 생각의 방식 속에 여러분을 가두어 밀어 넣게 하지 마십시오.</p>

<p>transformed". How are Christians transformed? How are our lives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Paul tells us. And it is the Word of God, it is the Bible, that we need to read and meditate on and hear preached, if our minds are to be renewed.</p>	<p>차라리 "변화되십시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설교로 들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말씀입니다.</p>
<p>Dare to be different in the way you think – not just for the sake of being different but for the sake of being a discipl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exactly what Daniel did. He resolved – he made up his mind as a matter of conviction – that he would not take the food and wine from the king's table. And God honoured him for it in a remarkable way, didn't he? We read in v. 17 that "to these 4 young men God g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ll kinds of literature and learning. And Daniel could understand visions and dreams of all kinds". They discovered, as people often do when they take the Lord seriously and when they begin to try to live out the Christian life in a committed kind of way – they discovered, as you will discover, that they had gifts which they didn't even know they possessed – and God blessed them. Daniel and his friends discovered there in their obedience to the Lord that they had gifts and opportunities that they were never even aware of before. So, too, will you, if you take the Lord seriously. God honours those who honour him. And in v. 21 we are told that "Daniel remained there "in Babylon" until the first year of King Cyrus". The first year of Cyrus was the year in which the decree was issued that enabled the Jews to return home (2 Chronicles 36: 22-23), almost 70 years after the time when Daniel and his friends were taken into exile. It is quite ironic. Daniel survived for nearly 70 years in that situation. He remained there well after Nebuchadnezzar. Indeed he outlived the Babylonian empire and saw the beginning of the Medo-Persian Empire. Why? Because as a young teenager he made up his mind that he was going to be serious about following the Lord. And God's faithfulness proved sufficient for his servant, Daniel, throughout the entire time of exile. But if Daniel had simply drifted along and never taken a stand on the matter of the royal food and wine, do you really think that he would have been able to face those lions when he was 80 years old in chapter 6? And if they hadn't taken a stand, do you think his 3 friends would have been able to face</p>	<p>용기 내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보십시오 - 그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 왕의 음식과 와인을 먹지 않겠다는 신념의 사안으로 그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7 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지와 언제 헌신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재능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 안에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재능과 기회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되게 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p> <p>21 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배 되어 온지 거의 70 년이 흐른 후였던 고레스왕 원년은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의 귀환을 허락한 법령이 책정된 해였습니다. (역대하 36:22-23)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의 70 년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왕 이후에도 그는 계속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참으로 그는 바빌론 왕국보다 오래 살았으며 메대-바사 왕국의 시작을 지켜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그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의 중, 다니엘에게 포로 생활의 기간 동안 내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니엘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 그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 6 장에서 그의 나이 80 에 사자들을 마주하는 것이 진정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들이 꺾끗이 버티지 않았다면, 3 장에서 보여지듯이 그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를 마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듯이 신성함의 시작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성취는 작은 것에</p>

<p>the fiery furnace in chapter 3? You see it's in the small things that holiness begins. It's in small matters that great victories are won. That is where holiness begins – it is in the details of life that godliness is to be worked out.</p>	<p>있습니다. 신성함이 역사되는 것은 삶의 사소한 것들에 있습니다.</p>
<p>Daniel resolved as a youth of 14 or 15 not to compromise with the world – to cooperate as far as he was able but without compromising. What about you? Let me ask you, “How committed are you? Have you ever taken a stand on anything? In your family life or in your occupation or in your recreation have you drawn the line somewhere?” It is not for me to tell you where. I’m not here to legislate. It is a matter of your conscience – it’s between you and God. But I’m asking you – “Have you ever resolved, determined to take a stand?” What about the programs your family watch on television, is that matter resolved in your house? You young people here this morning, do you realize that there is a battle going on for your minds <u>now</u> – through the music you listen to, through the magazines you read, through your use of the internet, through the movies you go to and the TV programs you watch. As a matter between you and the Lord, have you ever sat down and thought and prayed about it? Have you ever resolved these matters? Have you ever resolved, “This far and no further?”</p>	<p>다니엘은 14 세, 15 세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력하면서도, 그러나 타협 없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건대,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어떤 것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는 직업, 또는 여가 가운데 어딘가에 선을 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딘지를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여러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물건대”여러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뜻을 정하고, 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결정된 문제입니까? 오늘 아침 이곳의 젊은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까? - 여러분이 듣는 음악, 여러분이 읽는 잡지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여러분이 관람하는 영화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말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문제라면, 그것에 대하여 앉아서 생각하며 기도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뜻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 그리고 더 이상은 아니야”라고 다짐해 본 적이 있습니까?</p>
<p>Finally, there is one thing we must not miss in all of this. The reality for most of us is that when we look at our lives, we find that we are not like Daniel and his 3 friends. We are far more like the nameless other young men who were deported with Daniel, who ate the king’s food and altogether became like the Babylonians. In many respects, we are assimilated to the world system in which we live. So if the message of the book of Daniel is simply “Be like Daniel and all will be well”, then we might as well stop reading now. The more we get to know Daniel, the more we will realize that we are not Daniels.</p>	<p>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 대부분의 현실은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함께 송환되었던, 왕의 음식을 먹었고, 완전히 바빌론 사람과 같이 되었던 이름없는 다른 젊은이들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많은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제에 동화되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다니엘서의 전하는 바가 단순히 “다니엘처럼 되면 모두 잘 될 것임” 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를 읽는 것을 멈추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더 다니엘에 대해 알게 될수록, 더욱 더 우리가 다니엘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p>
<p>The good news of the gospel, however, is not simply that God is faithful to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It is that a Saviour has come to rescue faithless and compromised Christians like us. Our salvation rests not on our ability to remain undefiled by the world, but rather on the pure and undefiled offering that Jesus has provided in our place. Jesus Christ came</p>	<p>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신의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믿음 없고 타협적인 기독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구원자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남아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세상에 제공하신</p>

<p>voluntarily into this world, with all of its pains and trials. He endured far greater temptations and sufferings than Daniel did, or than we ever will. Yet he remained entirely faithful and pure till the very end, without spot or blemish. And he grants the perfection of <u>his</u> obedience to all those who trust in him by faith. What is more, Jesus has already returned from his time of exile and now sits at the Father's right hand in heaven. He has prepared our places there, and his presence there already is the guarantee that one day we will be with him there as his people. The cross is the means by which God's faithfulness redeems the unfaithful. The resurrection and ascension are the guarantee of our inheritance in heaven.</p>	<p>순수하고 순결한 선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고통과 시험과 함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감당하였던 것보다, 혹은 우리가 감당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유혹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얼룩이나 흠집 없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신실하시며 순수하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에 대한 <u>그의</u> 순종의 완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시대의 망명으로부터 돌아와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그곳에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며, 이미 그곳에 임하고 계심은 그의 사람들로 언젠가, 우리가 그와 함께 그곳에 거함의 굳은 약속입니다. 십자가란 충실하지 못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속을 보장합니다.</p>
<p>Remind yourself often of this gospel.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crucified, raised, and exalted. He has not only pioneered the way home – he <u>is</u> the way home. Trust in him and ask him to work in you a true faithfulness. Ask him to put you in places where you can be a blessing to your community. Be a breath of heavenly wisdom in your home, your workplace, your place of study. Be constantly dependent on his sanctifying work, looking to <u>him</u> to keep you faithful, not to your best efforts to “be a Daniel”.</p>	<p>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자주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선도함뿐 만 아니라, 그가 바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를 믿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공동체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도록 부탁하십시오. 하늘의 지혜의 숨결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공부하는 곳에 있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그의 거룩한 사역에 의존하며, “다니엘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u>그를</u> 의지하십시오.</p>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for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